

한국사 문제 7월18일

1. 다음 (가), (나) 발언이 있었던 사이시기에 일어난 일로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- (가)-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
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
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한다.
- (나)-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한일을
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.

오르비유평무스

공문서관학교

- ① 미소양군 철수결의문이 채택되었다.
- ②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.
- ③ 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어 한국문제가 UN에 상정되었다.
- ④ UN한국 임시위원단의 입북이 거절당하였다.
- ⑤ UN소총회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지시하였다.

2. 다음문서를 발표했을 때 임시정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(수완104P 테마2)

우리 3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, 영국, 미국, 네덜란드,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
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을 격파(擊敗)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
유효한 수단이 되므로 이를 축하하면서,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. (중략)

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 구

외무부장 조소앙

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

오르비유평무스

공문서관학교

- ① 전국강령인 삼균주의가 인쇄되어있는 종이
- ② OSS와 연합하여 처음 훈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보
- ③ 한국광복군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 지청천과 부사령관 김원봉
- ④ 인도파견에 앞서 주요 인사들과 환송회를 갖는 한국광복군일원들
- ⑤ 주석 김구선생과 부주석 김규식 선생이 임시정부의 앞날을 토론하는 모습